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제 2강 장자와 거니는 즐거움(逍遙遊)

◆ 1교시 소요유(逍遙遊) ①

▲ 장자의 글 쓰는 방식

『장자』를 처음 읽으면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속 읽어 보면요 더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이야길 하거든요. 처음 곤붕(鯤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곤붕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그게 작가의 역량 아니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테마는 동서고금 어디에나 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 있죠. 거기야 신이 이랬다 하면 다 통하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익스피어 방식이다, 이러면 희곡에서 처리되는 방식이라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연극적 요소가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뮤지컬 방식으로. 뮤지컬에서 소화 가능한 노래로 소화 가능한 방식이어야 되겠죠. 오페라면 오페라로 소화 가능한 방식이 돼야겠죠. 푸치니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또 뭐 새로운 형식이 요즘에는 옛날 **신화 방식**으로 가려나요.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픽으로 배우가 곤란한 부분들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신화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런 식의 글쓰기를 이야기하자면 **한유(韓愈)**라고 당나라 때 대문장가가 있죠. 한유의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 한유가 평생 동안. 한유는 그 당시 문인치고는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만날 송궁문(送窮文). 한유는 좀 특이한 사람인 게 자기가 가난하다 이거에요. 그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송궁문입니다. 그러니까 궁(窮)은 곤궁(困窮)이에요. 곤궁한 귀신. 궁귀(窮鬼). 이 놈이 나한테 붙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면 이놈을 보내는, 작별하는 문장을 잘 지으면 가지 않겠냐는 거죠. 멋있게 글을 썼습니다. 궁귀가 보더라도 감동할 정도로 쫙 썼는데 궁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그렇게 어려울 때 나만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당신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궁귀가 다시 되물어요. 그래서 한유가 궁귀에게 설득되어서 같이 지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악어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해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악어문을 짓

www.artnstudy.com

습니다. 악어야 물러가라 이런 식의 문장을 지어서 해결하려는 사람인데, 기가 막힌 것은 주로 한유로부터 문장을 받으면 그건 천고에 이름이 남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도 한유가 묘지명 한 번 써주면 그게 길이 남아요. 왜냐하면 한유 문장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고문진보』같은 데 실려서 길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금을 주고라도 한유로부터 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통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형식적으로 써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한유의 묘지명 같은 것은 글마다 다다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유는 그 하나하나의 문장을 이전에 자기가 썼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쓰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장자』를 읽어 보면 장자가 그렇습니다. 결국 한유의 문장도 『장자』에서 온 겁니다. 박지원의 문장도 『장자』에서 온 것이고요. 소동파의 문장도. 한유의 문장은 『맹자』와 『장자』에서 나왔고 소동파의 문장도 『맹자』와 『장자』에서 나왔습니다. 소동파도 가학으로 『맹자』를 익혔고 『논어』와 『장자』를 거의 한 문장인 거처럼 구사하는 그런 문장가이고 한유는 공자를, 성인을 알고 싶으면 맹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맹자 복권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한유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맹자』, 『장자』, 문장의 대가들이 가장 익숙하게 즐겨 취했던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자』의 문장을 한 번 들어 가봅시다.

▲ 곤붕 이야기 - 시원과 변화의 연결고리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장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명유어(北冥有魚). 북명은 북쪽 바다. 명(冥)은 삼수를 붙여 가지고 바다 명(溟) 자로 씁니다. 원래 한자라고 하는 게요. 간단한 글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벽(辟) 자인데 벽 자 하나를 놓고 피한다는 뜻으로도 쓰고요(避). 회피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사람 인자를 쓰면 (僻) 치우치다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 언 자를 쓰면 (譬) 비유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이것만 놔두고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 명 자 한 글자를 놓고 어둡다는 뜻으로도 쓰고 바다 명(溟) 자로도 씁니다.

근데 바다는 바단데 어두운 바다죠. 검푸른 바답니다. 저 북쪽 바다에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눈 목 자를 붙여 버리면(瞑) 눈이 캄캄한 거지요. 그러니까 명은 일단 어둡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북명은 바다 명(溟) 자다. 북쪽 바다, 검푸른 바다. 검은 바답니다. 그때 검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다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 깊은 바다에 유어(有魚),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장자 이야기죠.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기명위곤(其名爲鯤)이라. 그 이름이 **곤(鯤)**이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곤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습

www.artnstudy.com

니다. 여기서는 일단 물고기 이름으로 곤이 나왔는데 본래 이 곤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의 자(魚子), 물고기 씨앗이란 뜻입니다. 물고기 알이에요. 이 아들 자(子) 자가 씨앗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물고기 알이기도 하고 작은 치어, 새끼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새끼 물고기를 곤이라고 내세워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사실 황당합니다. 이 곤의 크기.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곤이라 이거야. 근데 그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죠(鯤之大). 크기가 부지기천리야(不知其幾千里也)라.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죠. 그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하는 물고기의 이름이 곤이고 그 곤은 본래 작은 물고기, 물고기 알을 의미하고, 시초를 의미합니다.

이 곤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어요. 곤은 땅으로 치면 땅 곤(坤) 자거든요. 『회남자』에 **곤둔(坤屯)**이란 말이 있는데요 '곤둔'이라는 말은 곤은『주역』에 나오는 곤괘와 같고 땅을 의미합니다. 둔은 『주역』에 나오는 둔 괘와 같습니다. 그 '곤둔'은 **혼돈(混沌)**과 같아요. 혼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混)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渾). 혼돈은 뭐냐 하면 카오스죠. 질서가 있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최초의 상태, 시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곤은 처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다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곤둔, 혼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돈이라는 건 또 어떤 문자와 통하냐 하면 혼륜(混淪).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혼돈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혼륜은 또 곤륜(崑崙)과 같습니다. 곤륜산을 의미합니다. 아득히 높은 산. **만물의 시원**이 되는 산. 강의 발원지. 이런 뜻으로 씁니다. 결국 곤둔이나 혼돈이나 혼륜이나 또 곤륜이다 같은 의미로 쓰는데 그 씨앗이 여기에 곤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의미의 『장자』 내편의 맨 마지막 편에 보면 혼돈이 나와요. 『장자』가 정교하게 편집이 된 책이거든요. 처음에 곤이 나오고 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초의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자』 내편의 마지막 편이 「응제왕」 편인데 「응제왕」 편의 마지막 장이 혼돈이 죽는 이야깁니다.

아시다시피 숙과 홀이 있지요. 숙과 홀은 시간의 신입니다. 찰나 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의 신이에요. 근데 숙과 홀이 혼돈의 땅, 중앙의 땅, 혼돈의 땅에 가서 놉니다. 혼돈이 숙과 홀을 잘 대우해줘요. 숙과 홀이 혼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혼돈은 얼굴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답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구멍을 뚫어 줘요. 하루에 하나씩 뚫어 줬는데 칠일 만에 혼돈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있죠. 일곱 개의 구멍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구멍수 아닙니까? 인간의 지각 능력을 갖도록 했더니 혼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장자는 처음에 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혼돈이라는 장치를 정교하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www.artnstudy.com

곤지대(鯤之大).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일단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이 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化), 변해서 새가 되죠(化而爲鳥). 기명위붕(其名爲鵬)이라. 그 이름이 붕(鵬)이다. **화(化), 변화하는 거죠. 화는 『장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하면요 『장자』에 보면 거백옥행년육십이육십화(遽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거백옥은 공자가 존경했던 위나라의 현자인데요, 그 거백옥은 행년육십(行年六十), 육십 년을 살았다 이거에요. 나이 육십이 될 때까지 육십화(六十化), 육십 번 변했다. '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자가 또 어떻게 살았느냐. 공자가 나이가 오십이 되어서, 행년오십(行年五十), 지사십구년지비(知四十九年之非)라. 사십 구년 동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속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화입니다. 물론 『장자』의 화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 나무에서 생쥐로 바뀌고 생쥐에서 다시 새로 바뀌고 새에서 물고기로 바뀌고 이런 식의 변화가 계속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용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변하냐면 물고기가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化), 이 물고기가 변해서 위조(爲鳥), 새가 되는데, 기명위붕(其名爲鵬)이라. 그 이름이 위붕(爲鵬), 붕(鵬)이다. 붕새가 여기서 등장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고기고 물고기는 저 깊은 물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 입니다. 그런데 변하기는 새가 된 거죠. 이런 정서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방이지(方以智)라고 하는 명말청초의 학자의 얘긴데요, 방이지는 이걸 『중용』과 대비를 시켜요. 『중용』에 보면 연비여천 어약우연(鳶飛戾天 魚躍于淵)이란 말이 나오죠. 『중용』에 보면 솔개는 저 하늘가에 나르고. 연비여천이란 구절이 나오죠.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까지 도달하고. 어약우연이라. 물고기는 깊은 연못. 연은 깊은 못입니다. 연은 본래 깊은 물이면 다 연이고 꼭 연못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연이 있어요. 해연하면 가장 깊은 곳이 해연입니다. 마닐라 해구가 있고 거기서 가장 깊은 데가 해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깊은 물 속에서 물고기는 어약우연, 그 깊은 물 속에서 약(躍), 뛰어논다. 그런데 『중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언기상하찰야(言其上下察也)라. 그 이치는 똑같이 상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장자』의 얘기도 마찬가집니다. 하나의 존재는 저 깊은 물 속, 어두운 바다, 명에서 움직이고, 또 하나의 존재는 그게 변해서 붕새가 되었다 이거에요. 같은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화라는 글자가 최근에 논문이 여러 편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에서 나온 박사 논문인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장자의 변과 화의 철학이라고 해서 김경희 선생이라는 분인데. 장자의 변과 화의 철학 해가지고 그걸로 학위 논문을 썼고요, 성대 쪽에서 최옥건 선생이라고 역시 장자의 화를 주제로 썼고. 김경희 선생은 로버트

www.artnstudy.com

앨린슨이라고 『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 그 앨린슨이라는 학자는 화를 영혼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보고 저술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 화라는 글자도 변화(變化)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변(變)은 변화의 시작이고 화(化)는 변화의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본래 옛날 고자는 화가 사람 인(人) 자를 똑바로 하나 그려놓고 또 하나를 이렇게 그려 놓은 이게 화에요. 삐딱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화' 자입니다. 이건 살아 있는 사람이고 이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장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한 게 장자에요. 그게 장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럴 때 장자는 죽음의 문제를 화로 처리합니다. 어떤 사물이 하나가 생겼다. **생(生).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死), 죽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사물이 사, 죽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생, 살아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생사에 얽매여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장자가 하거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든지 가(可)와 불가(不可)라든지 연(然)과 불연(不然). 가불가(可不可). 가(可), 옳은 거고, 불가(不可), 그른 겁니다. 그리고 연, 불연. 연(然), 그렇다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불연(不然),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 그리고 시비, 옳고 그름. 이것도 다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에서 가하면 어느 한쪽은 불가가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연하면 어느 한쪽이 불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장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생사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건데요.

물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위안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던져 봐야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합니다. 혹시 거짓 위안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장자』를 읽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대종사」편이나 「덕충부」편. 「덕충부」편은 덕이 충만하고 있다는 표십니다, 부(符). 부호인데. 그 부호는 주로 장애라든지. 장애도 정도가 아주 심해요. 인기지리무순. 인기는 발꿈치가 없다는 뜻이고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는 뜻이고 무순은 입술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청이. 그러니까 총체적인 장애와 기형이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를 아는 사람으로 내세우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자』를 제대로 읽으면 그게 실제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거짓은 아니죠.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자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위의식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위안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장자 자신이 허위의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 많이 가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보고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www.artnstudy.com

사람을 보고 위안을 얻는 방식이 나의 삶에서 정당한 방식인가 그 위안이 정당한 것인지 돌이켜 보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연 장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당시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느냐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욕망을 두고 비웃는데 그 비웃음이 정말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자 스스로가 건강해야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를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의 불우한 처지라든지 이런 걸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소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화'라는 주제가 또 달리 나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해서 새가 되고 그 새가 이름이 붕입니다. 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봉황새의 고자(古字)란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붕새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였다가 그게 물고기가 붕새가 되는 거죠.** 이 붕새가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는데 그냥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요. 노이비(怒而飛)해요. 노해서 날아올라요. 이 노(怒)라는 글자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차게 날아오른다는 정도로 부사로 그냥 풀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이지 같은 학자들은요 뒤에 나오는 조(蜩)와 학구(學鳩). 조는 매미거든요. 학구는 날개짓을 배우는 작은 새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붕새를 보고 비웃습니다. 소지왈(笑之曰). 붕새가 구만리를 날아오르거든요. 그걸 갖고 매미나 어린 새들이 비웃습니다. 쟤 이상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오타쿠라고 그럽니까?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걸 보고 그런 식의 비웃음을 할 수 있죠. 그런 소(笑)와 노(怒)를 상대한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노를 그렇게 심각하게 번역하진 않고 세차게 날아오른다, 힘껏 날아오른다. 그냥은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워낙 크잖아요. 몇 천 리나 되니까. 노이비 해야 겨우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날아오르면 기익약수천지운(其翼若垂天之雲). 붕새의 날개가요 마치 이와 같다. 같을 약(若) 자요. 수천지운(垂天之雲). 수(垂)는 드리운다. 수천(垂天)하면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새의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수(垂)라고 하는 건 수학 용어인데요. 1/3을 드리운 게 수에요. 족삼분수위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1/3을 덮은 거예요. 새의 날개가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그런데 이 새가 시조야. 해운즉장사어남명(海運則將徙於南冥)이라. 여러분들 자료에 다 나와 있죠. 남명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북명에서 시작했죠. 북쪽 바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새가 남명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조야(是鳥也), 이 새가 할 때 이끼 야(也) 자는 호칭에 붙는 접미사 정도로요. 누구누구가 하는 얘기

www.artnstudy.com

입니다. 주격조사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 새가 해운(海運), 바다가 움직이면. 바다가 움직인다는 건 바다에 큰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육 개월마다 한 번 바람이 분다.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 보면 바다에 큰바람이 불면 장차, 이렇게 하려고 한다. 사어남명(徙於南冥). 남쪽 바다로 옮겨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남명이라는 게 뭐냐. 남명자(南冥者)는 천지야(天池也)라. 남명은 천지다. 남명이라는 것은 천지다.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북쪽에는 그냥 땅 위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의 못이 되는 거죠. 방이지의 얘기가 이게 남명이 천지라면 북명도 당연히 천지일 수밖에 없다.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천지라고 하는 곳,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붕새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장자는 다짜고짜 이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곤이다. 어떻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피라미나 작은 물고기의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 변해서 새가 되고 그리고 그 새는 **북명의 물고기가 변해서 된 새인데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장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요.

◆ 2교시 소요유(逍遙遊) ②

▲ 제해 이야기

제해(齊諧) 이야기를 하죠. 제해자(齊諧者)는 지괴자야(志怪者也)라. 제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책 이름이냐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해라고 하는 사람은 지괴(志怪), 이상한 이야기를 지(志),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도 되고, 제해라고 하는 책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둔 책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장자의 시대에 문헌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志)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지(識) 자와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알 식(識)자로 쓰지만 표지(標識)라고 할 땐 지(識)자로 읽거든요. 이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전 문헌 속에서 인간의 머리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문헌(文獻)이 있다 할 때 문(文)과 헌(獻), 이렇게 얘기해요. 문과 헌 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게 『논어』에요. 그러니까 공자 얘깁니다, 하나라 예를 내가 말을 할 순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은나라 예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 왜? 문헌이 부족해서이다. 주나라 예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문헌이 부족하다 할 때 문(文)은 전적이고. 이게 문자를 기록한 문

www.artnstudy.com

입니다. 헌(獻)은 현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기록 매체로서 가장 뛰어난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나라 시대에는 갑골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의 배딱지, 등딱지, 이게 좋은 수단으로 쓰였죠. 점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검문에 새기고 그랬죠. 그런데 청동검문에 새긴 것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수단이 목간이나 죽간인데 죽간이 승리했죠. 죽간이 아주 가볍고 또 죽간의 특성상 살층이라고 해서 푸른색을 빼는 작업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 특성상 죽간이 아주 유용한 그런 기록 매체가 되었는데 그 죽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보관도 힘듭니다. 죽간도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놓은 게 하나하나 써놓고 가죽 끈으로 쭉 연결한 거죠. 이걸 따서 책(冊)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죽으로 묶어놓은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겠죠. 흩어져 버리면 그걸 다시 엮어야 되잖아요. 엮으려면 순서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머리에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엮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의 문헌 중에는 이게 제대로 엮어지지 않아서 생긴 오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취들이 많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공자가 제자들 하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공자 제자 머리 속에 다 기억해 놓은 거지 그걸 따로 기록해 놓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돌아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게 유목, 노마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몸이 간편해야지 유목이 되지요. 몸이 무거우면 유목이 안 되죠. 요즘은 몸을 간편하게 하는 장치가 많잖아요. PDP도 있고 PSP같은 것도 있고 요즘 닌텐도 해가지고 엄청나죠. 제가 알기로 책을 지하철에서 앞뒤 자리에 책을 읽으면 그건 백만 부 이상 팔린 책이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백만 대 이상 팔리나 봐요. 옛날에 제 기억에 장길산이 앞쪽에도 장길산을 읽고 저도 장길산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백만 부가 가볍게 넘게 팔렸어요. 요즘 앞뒤 자리에 똑같은 이런 거하니까. 이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가격이 책값은 몇 천원이지만 그건 십 몇 만 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유목을 도와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유목이라고 하는 게 그런 테크놀로지나 이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측면도 있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기 한 번 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전기 한 번 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다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못 살잖아요. 60층짜리 고층 아파트 전기 다 끊기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조선 들어오다가 좌초하고 침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와야 되겠죠. 화장실도 안 될 거고 환기도 안 될 거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주의나 이런 게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www.artnstudy.com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기억 매체로서 사람을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사람 이야기로 봅니다. 대화니까요. 앞에서는 자기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제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인가? 장자가 창작의 귀재 아닙니까. 견오(肩吾), 어깨란 뜻이거든요. 어깨 견(肩) 자에 나 오(吾) 잡니다. 어깨를 사람으로 만든 거 에요, 그냥. 나 어깨에요. 연숙(連叔). 어깨와 이어져 있는 팔꿈치. 그걸 연숙이라고 한 겁니다. 그 둘이 대화를 해요. 그게 장자죠. 그러니까 제해라는 책이 따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자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이렇게도 지어냈다가 저렇게도 지어냈다가. 그러니까 이 **제해라는 친구는 지괴, 괴이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붕지사어남명야(鵬之徙於南冥也). 붕새가 갈 지(之) 자는 주격 조사고요, 사(徙), 옮길 사 자죠. 붕새가 남명으로 옮겨 갈 때. 붕지(鵬之), 붕새가, 남명, 남쪽 바다. 천지죠. 사(徙), 옮겨 갈 때에 수격삼천리(水擊三千里)이다. 격(擊)은 칠 격(擊) 자입니다. 격이라는 발음 자체가 친다는 뜻이 있어요. 물로 치면 이 격(激)이고요. 물이 세차게 치면 격렬(激烈)하다 할 때 이 격이고요, 손으로 치면 이 격(擊)입니다. 수격삼천리인데. 『장자』엔 도치된 구문이 많아요. 격수삼천리입니다. 물을 치는 겁니다. 새가 손으로 칠 수 없으니까 날개로 치는 거죠. 날개로 물을 치면 물이 삼천리를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튀길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차게 튀기는 거죠. 그래서 노이비(怒而飛)의 노(怒) 자를 감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차게 치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크니까 세차게 쳐야 되고 그 도약력과 함께 그냥은 못 날아요. 박부요양각(搏扶搖羊角). 박(搏)은 칠 박 자입니다. 부요(扶搖)는 이제 회오리바람 이름이에요.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는 회오리바람이에요. 회오리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게 구만리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마지막까지는 못합니다만 뒤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때는 박부요양각이상자삼만리(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해서 양 뿔 얘기가 나와요, 양각. 여기서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탕 임금하고 그 당시의 현인. 옛날 탕 임금하면은 최초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군왕이고. 그 탕 임금의 말과 함께 탕 임금의 현자였던 극(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또 붕새가 나옵니다. 궁발지북(窮髮之北)에 유명해자(有冥海者)라. 불모지 저 북쪽에 명해가 있다, 어두운 바다가 있다. 그 어두운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유어언(有魚焉). 근데 이게 화이위조,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가 박부요양각이상자삼만리(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해서 양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뿔. 북쪽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새가 되는데 이 새가 날개 짓으로 물을 튀기는 거죠. 그리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이렇게 양 뿔처럼. 양 뿔이 조그만 양 뿔이 아니라 산양 같이 큰 양 뿔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양 뿔처럼 구만 리를 올라가는데. 구만 리를 올라간 다음

www.artnstudy.com

에 연후도남(然後圖南)이라. 지도(地圖)할 때 도(圖) 잔데 이것도 바깥에 나라 국(國) 자를 빼야 맞는 글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쪽으로 도, 도모한다. 남쪽을 향한다. 구만리를 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후도남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서 거이육월식자야(去以六月息者也)라. 한 번 떠나면, 거(去), 한 번 날아갔다 하면 이유월(以六月), 육 개월이에요. 육 개월을 기한으로 쉰다. 육 개월을 기한으로 쉰다 하면 육 개월 갔다가 또 육 개월 돌아왔다가, 일 년의 운행이겠죠. 그 일 년의 운행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거의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주역』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고요. 『주역』에도 잠룡물용(潛龍勿用)해서 잠룡은 물 속에 잠겨있는 용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밖으로 나왔다가 결국 비룡재천(飛龍在天)이 되거든요. 하늘을 나는 용이 됩니다. 저 물 속에서 놀던 존재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치는 전부 관통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육 개월 동안 날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커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사물들의 이야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야마(野馬)와 진애(塵埃)가 나오죠. 이렇게 큰 놈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야마, 진해죠. 야마(野馬)는 들 야(野) 자에다가 말 마(馬) 자죠. 진애(塵埃)는 티끌 진(塵) 자에다가 먼지 애(埃) 자. 야마는 들을 달리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철에 아지랑이가 올라가면서 마치 말을 달리는 것처럼 아롱아롱 보이는 모습을 야마라고 했다는 주석이 유력하고 그 외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의 빠름은 마치 백구(白駒), 흰 망아지가 문틈 사이를 휙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찰나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지랑이는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일렁임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아주 찰나 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애는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하곤 완전히 다른 거죠. 붕새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치고 나르고 난리법석을 쳐야 하는데 야마, 진애, 이런 것들은 생물지이식상취야(生物之以息相吹也)라.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장자』에는 생물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범을 키울 때에 살아있는 생물체를 직접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장자』에 나옵니다. 그거는 범의 포악한 성질이 찢어발기려고 하는 포악한 성질을 돋우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육사를 물어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장자』에 나옵니다. 요즘 중국에는 보니까 동물원에서 일부러 끔찍하대요. 목불인견이더만요.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키우는데 살아있는 소를 풀어갖고 잡아먹게 하고 야성을 키운대나 어쩐대나 그거 보면서 와하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끔찍하더군요. 『장자』를 안 읽어서 그런 거 같아요. 『장자』 좀 읽으면 이런 건 옳지 않다 알 텐데. 생물지이식상취야(生物之以息相吹也)라. 생물체가 식(息)은 숨쉰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뜻도 되고 불이 꺼진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하는 거는 번식의 뜻도 있고 끝장난다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자는 보통 두

www.artnstudy.com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어지러울 난(亂) 자는 어지러움을 다스린다는 뜻도 되고 어지럽다는 뜻도 됩니다. 난신(亂臣) 그러면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힌 신하도 되고, 나라를 다스린 신하도 됩니다. 『논어』에 두 가지 용례가 다 나와요. 식(息) 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대로 이식상취(以息相吹). 상취(相吹)할 때 취(吹)는 불 취 자죠. 살아있는 대로 이식상취하라. 불어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가 숨쉬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존재들이다.

앞에 곤붕은 엄청나게 거대한 사물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 구조 속에서 움직이죠. 물을 막 치고 삼천리를 튀기고 구만 리를 올라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야마, 진애, 이런 것들은 생물체가 숨만 쉬어도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장자 스타일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놓고 결론을 안 내려요. 천지창창(天之蒼蒼). 하늘이 푸르다 이거에요. 원래 창창은 봄이 되어 풀이 막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게 창창입니다. 여기선 하늘의 색깔을 창창이라고 하죠. 원래 파장이 길어서 푸른색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색깔을 그릴 때는 푸른색으로 그리죠. 가까이 있는 거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요. 하늘이 푸르고 푸른 거는 그게 제대로 된 색깔인가(其正色邪). 하늘이 푸른데 그게 본래 하늘의 색깔이냐 그거에요. 하늘의 색깔인지 알 수가 없죠. 비쳐서 그렇게 된 거죠. 푸른색 파장만 우리 눈에 오니까 푸르게 보이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빛이 다 오면 붉은색도 보일 거고 노란색도 보이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녹색이라 그러면 녹색이 반사되어서 보이는 거죠. 물체의 고유의 색이 녹색인가 다른 빛깔 비춰보면 아니게 나오니까 우리 눈을 그냥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고민을 장자는 같이 한 거죠. 하늘이 푸르고 푸른데 그게 올바른 색깔인가. 그게 제 색깔인가. 아니면 기원이무소지극야(其遠而無所至極邪). 그 하늘은 또 멀어서 무소지극(無所至極). 지극(至極)의 극(極)은 끝이란 뜻이죠. 그 하늘은 원(遠), 멀어서, 지극(至極), 끝까지 도달하는 바가 없어서인가. 하늘이 워낙 멀고멀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하늘의 끝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기시하야(其視下也).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거에요.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도 약시즉이의(若是則已矣). 아마도 이와 같을. 즉이의(則已矣) 전체가 종결사입니다. 『논어』 같은 데는 이이의(而已矣), 이런 식으로 종결사가 되요. 말이을 이(而) 자는 면 즉(則) 자와 같이 쓰입니다. 즉이의나 이이의나 같아요. 단정형 종결삽니다. 그 하늘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아마 똑같을 것이다. 아래에서 저 하늘을 올려다보나 저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나 아마도 같을 것이다.

장자의 얘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존재들은 크게 움직이는 존재들대로 있고 작게 야마나 진애처럼 작게 움직이는 것들은 작게 움직이는 존재들대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둘이 같은 거다. 거기에 착안해서 이를 테면 곤붕의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조와 학구. 매미라든지 어린 새끼 새 이야기를 같이 대비시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잠

www.artnstudy.com

깐 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또 시간 관계되어 있으니까 다 쓰지는 않고 말씀으로 드리지요.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탕 임금하고 극의 이야기죠. 탕 임금, 옛날 고대 처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탕 임금. 그리고 탕 임금의 신하 극. 찌를 자(刺) 자고 이건 발랄할 랄(剌) 잡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이름이 재밌는 게 호열랄(虎烈剌). 콜레라죠. 그런데 이게 잘못 이게 되어 가지고 이 글자로 둔갑이 되어서 호열자(虎烈刺)가 되어 버렸죠.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콜레라를 호열랄이라고 하든 호열자라고 하든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발음 같고 너무 심각하게 따질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최근에는 또 저 논쟁이 일어났죠. 자산어보냐 현산어보냐 이러는데 이미 교과서에도 다 자산어보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현산어보라고 하는 게 임형택 선생 논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거 같습니다. 맞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자산어보를 버리고 현산어보로 바꾸라고 하는 게 그다지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일인 거 같지 않다는 게 제 견해에요(*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저술한 『玆山魚譜』를 자산어보로 읽어야 되느냐 현산어보로 읽어야 되느냐는 논쟁)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였고 탕 임금이 현인인 극에게 물어 보았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궁발지북(窮髮之北)에 궁발(窮髮)은 발(髮)이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을 의미하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저 북쪽. 그러니까 초목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 북쪽입니다. 거기에 명해가 있는데 아주 검은 바다가 있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 그 물고기 이야기를 쭉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장자가 곤붕의 이야기를 하고.

▲ 매미와 새끼 새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소년(小年)과 대년(大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탕 임금이 극에게 물었을 때 극이 이야기하는 곤붕 이야기에는 앞의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 처음에는 곤과 붕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1절은요. 방이지 같은 학자는 이걸 3절의 노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절에는 곤과 붕, 곤이 붕으로 변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그렇게 거대한 존재와 야마나 진해 같은 작은 존재들을 대비시켰습니다.** 아주 커다란 것과 작은 것들을 대비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곤과 붕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게 조와 학구죠. 곤은 '양박이상자구만리'라고해서 구만 리를 날아올라갔고 거창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조여학구(蜩與學鳩), 매미와 학구. **학(學)은 본래 배울 학 잔데 뭘 배우냐면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는 게 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자의 고본 『장자』에 보면 밑에 게 새로 되어있는 학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울 '학' 자입니다. 새가 뭐 배우겠어요? 날

www.artnstudy.com

개 짓하는 거 배우는 거 에요. 학은 날개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쓰고 이건 자식이 배우는 거죠. 이게 손이고 여기 있는 '효'자가 늙은 아버지에요. '효'자가 기울어지면 늙을 '노'자가 되잖아요. 아들 자 자가 들어가면 효도라는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늙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겠죠. 그리고 새는 새 된 도리를 배우겠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학습(學習)이라고 나오잖아요. 습(習)이 날개 짓하는 것, 흰 백(白) 자는 날마다 라는 뜻이거든요. 깃 우(羽) 자가 날개 짓하는 겁니다.

새 조(鳥) 자 들어간 학 자도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간 학 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하와이에 우리나라 하와이 이민사가 우리나라 이민이 거기 도착한 게 1903년 1월 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1년 만에 한인 학교를 만듭니다. 대단한 한국인이죠. 1년 만에 교육 기관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상투하고 갔던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하와이 호놀룰루 입국하려고 하니까 머리 안 자르면 못 들어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못 자른다. 이랬는데 자식들이 밤에 몰래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상투를요. 모르죠. 낮에 절대 내 머리를 자르지 마, 이래 놓고는 밤에 잘 때 잘라, 뭐 이랬는지 모릅니다만 밤에 잘라 가지고 입국하고 1년 만에 한인 학교를 세우게 했는데 그때 교재가 『소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제가 표지를 봤어요. 표지를 봤더니 '학'자를 이렇게 학 썼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 된 도리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여기 학구는 뭐냐 하면 붕새처럼 큰 날개 짓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날개 짓도 막 배우는 작은 새끼 새라는 뜻입니다. 구(鳩)라는 게 보통 비둘기 구 이렇게 씁니다만 이때는 비둘기라는 뜻이 아니고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구라는 발음에 예를 들어 아까 백구(白駒)라고 할 때 구(駒) 자 나왔죠. 이건 말이 아니고 망아지입니다. 새끼에요. 그리고 이 구도 있죠. 개 구(狗) 자죠. 근데 이 구는 강아지란 뜻입니다. 새끼, 하룻강아지에요. 일일지구(一日之狗)의 하룻강아지란 뜻이지, 큰 개가 아닙니다. 큰 개는 이게(犬) 큰 갭니다. 이것도(狗) 새끼고 이 망아지도 구(駒)고 이것도 구(鳩)에요. 그런가 하면 병아리도 구에요. '구엄'이라고 해서 병아리 구 자 씁니다. **구라는 데 이미 새끼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 학 자까지 붙어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놈들은 제대로 못 나는 거거든요. 매미는 말할 것도 없이 매미가 날아봤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멀리 날 생각을 안 하죠. 바로 이 매미와 이제 막 날개 짓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새들이 보고는 붕새가 구만 리를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간다만다 이러니까 그걸 소지왈(笑之曰). 비웃는 대목이 나오죠. 결국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결기이비(我決起而飛), 우리는 폴짝 날아올라 가지고, 창유방이지(槍楡枋而止),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그런 데 도달하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거기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내동댕이쳐지는 신세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나는 건 나는 거라는 말이 나오죠. 말은 맞습니다. 그것도 나는 건 나는 거죠. 그런데 무엇 하러 붕새란 놈은 해이지구만리이남위(奚以之九萬里而南爲). 무엇 때문

www.artnstudy.com

에 구만 리 장천을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날아가는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이런 비웃음을 이야기한 대목이 세 번째 대목에 나옵니다.

▲ 장자의 주석가 곽상

그러니까 붕새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새들의 비웃음을 마지막에 넣어 놓았죠. 우리는 일단은 그런 걸 보면 장자가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대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꼭 그런 방식으로 읽혔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장자』의 가장 오래된 주석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자』를 전해준 '곽상'이라는 진대의 주석가가 있어요. 곽상이라는 주석가는 『장자』 33편. 『장자』가 본래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10여만 자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보면 50편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해지는 『장자』는 33편이고 6만5천여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여 만자의 『장자』가 『한서』「예문지」 기록 시 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곽상의 『장자』는 33편, 6만5천 여자. 이 정도로 남아있는 건데 이 주석은 곽상에 의해서 전해진 거죠. 어떤 학자는 곽상이 『장자』 나머지 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배신자다 이러는데 그건 좀 곤란하죠. 곽상 때문에 33편이 전해졌다고 봐야지 곽상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곽상에 대한 억울한 평가고 그런데 곽상과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상수라는 학자가 본래 『장자』 주석을 했는데 곽상이 상수의 주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표절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있습니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상수의 주석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고 경쟁선문에 일부가 전해지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곽상의 주석 속에 상수의 주석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 꽤 있고 곽상의 주석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곽상을 미워한 그 당시 지식인들이 곽상을 따돌리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헌을 쓰는 사람들이 꼭 진실만 전하지 않거든요. 저도 꼭 진실만 전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언론관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해주는 대로 다 봐버리면 완전히 캄캄해 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게 좋을 정도로. 곽상이 그 당시 바로 뒤에 지식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벼슬자리를 탐낸 그런 자취가 있거든요. 본래 벼슬자리 좋다고 해서 한 사람은 비난을 안 받습니다. 원래 가치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로부터 초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그건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곽상의 33편의 『장자』가 전해지는데 그 33편의 『장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편 7편이고 오늘 시간 관계 상 내편 7편중의 첫 번째 이야기만 여러분들하고 일단 봤습니다.

www.artnstudy.com

▲ 강의 정리 및 다음 강의에 대한 공지

그래서 일단 오늘 「소요유」편의 첫 번째 편을 보면서 일단 『장자』 첫 번째 이야기를 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한 번의 시간에 한 편을 인제 어쨌든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요유」편은 한 번 다음 시간 앞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라는 말이 「소요유」편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명색이 「소요유」편인데 소요라는 말이 장자의 텍스트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를 아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요유」편을 할 때 「소요유」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장자의 핵심은 그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 「소요유」편을 이야기하면서 소요와 방황을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요유」편 첫 번째 이야기 곤붕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장자』는 대화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앞으로 저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장자』 독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소요유」편 전체가 완역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한 번 읽어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표현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체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전공자들의 문제점은요. 자기가 아는 걸 남들이 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자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른바 자폐라고 하는 거는 남이 아는 거를 내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아듣질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장자』를 읽으면서 장자가 그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저도 같이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장자』 참 아름다운 문장이고 어려운 문장이지만 앞으로 이걸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한 번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www.artnstudy.com